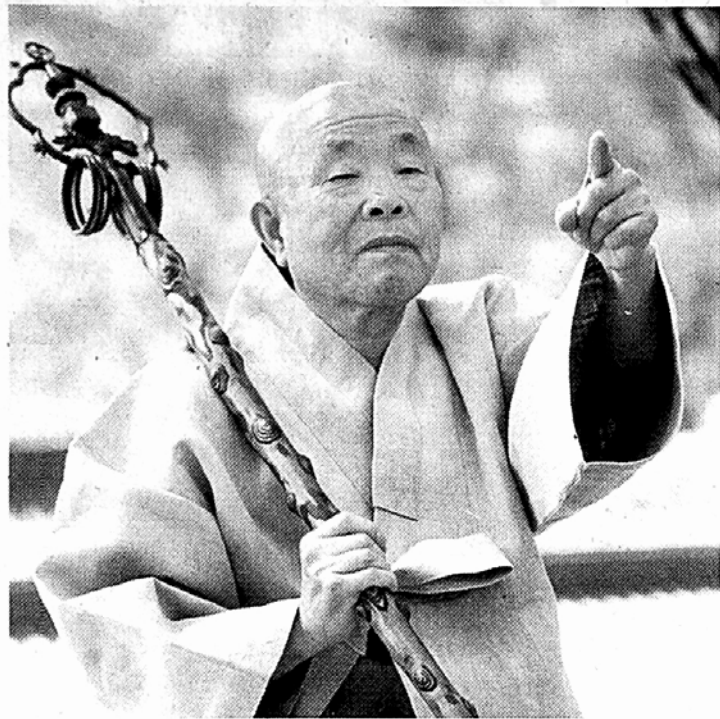


“자성 깨우쳐 자신이 만든 극락서 살아야”



조계종 11대 중정 법전 스님 첫 기자회견

2일, 조계종 새 중정 법전(法傳)스님을 천견하기 위해 가야산 초입에 들어서자 온통 꽃으로 정엄된 아름다운 화엄세계가 펼쳐졌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화엄경 등에서 중생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꽃에 비유해 설명하셨다. 꽃을 인간세계에 비유한다면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수행의 꽃 일 것이다.

50년 정진으로 한길을 걸으며, 수행의 진한 향기를 내뿜는 조계종 11대 중정 법전 스님. 스님은 목련꽃 향기가 진동하는 해인사 퇴설전 앞뜰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수행과 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전스님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부처다”며 “나는 하느님이 만든 천당도, 아미타불이 만든 극락도 원치 않는다. 나의 자성을 깨쳐 내가 만든 극락에서 살고 싶다”는 말로 철저한 수행을 강조했다.

북 하겠습니. 해인사는 문화재 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49년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는 등 조사선 수행으로 평생 한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불교수행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요?

“수행은 자기실현의 길입니다. 자기의 실상을 자각해야 존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명과 탐욕으로 인해 본성을 잃고 있지요. 끊임없는 사유와 정진으로 내심지중(內心自證)하며 자성을 증오해야만, 나고 죽

를 통한 스님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는 지방선거, 대선 등 국운이 달린 대사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정치인의 덕목을 일러주시요.

“산승인 제가 정치에 대해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지 비판적인 소리만 해서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큰 일들을 성공적으로 치르면 반드시 선진국에 진입할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스님께서 좋아하시는 법구(法句)로서 평소 자주 들려주시는 가르침이 있으신지요.

“內勤勸念之功내근급지공하고 外私不爭之德외홍부쟁지덕하라”란 말을 좋아합니다. 안으로는 부지런히 남모르게 수행을 하고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쌓으라는 말이지요. 수행은 승려의 본분이나 담연해야 할 일이고 또 인연 따라 여러 가지 소임을 살피고 보니 덕도 쌓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자 애쓰고 늘 자기의 분수를 알고서 스스로를 돌아보고자 애써야 합니다.”

인터뷰를 마쳐자 스님은 기자들에게 갑자기 선물들을 주겠다고 말씀했다.

“당나라 말기에 산골에 오막살이집을 짓고 깨우침을 지으며 살았던 투자(投子)선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한 수좌가 찾아갔어요. 투자선사가 “그대는 어디서 오느냐”고 묻자 수좌는 “칼산으로부터 옵니다”라고 답해요. 이에 투자선사가 “칼을 가지고 왔느냐”고 말하자 수좌는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 법문한 스님은 “기자들, 수좌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킨 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라고 물었다. 모두들 어리둥절하며 숨을 죽이는 줄나. “자 아무도 얘기 못하시네. 한번 얘기해봐...” 스님이 가야산이 흔들리도록 큰소리로 활을 하셨다. “악!”

해인사를 나서는 기자들에게 원철 스님(해인사 편지장)이 시(詩) 한편을 적은 종이를 한장씩 주었다. 중국 당의 은사 한산이 지은 시(詩)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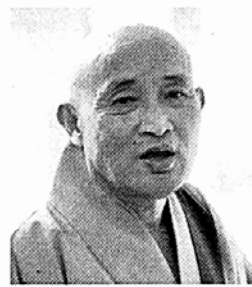
寒山子 長如是(한산자 장여시) 獨自去 不生死(독자거 불생사) 한산자는 항상 변함이 없어서, 홀로 스스로 가고 생각이 없다

문득, 법전 스님이 화두에 이어 답을 주신 것은 아닌가 느껴졌다.

글 =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nia.com 사진 = 고영배 기자 yogo@buddhania.com

“설문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불교종단협의회장 정대 스님 당부 말씀



◆종단협 회장 정대 스님.

귀의삼보 하옵고, 봄기운 완연한 이 좋은 시절에 전법도생의 사명에 여념이 없으신 제방의 대덕 스님들과 참 불자의 삶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불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일컬어 정보화 사회라 합니다. 정보가 인류의 삶에 있어 가장 중심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불교계도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은 사회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갈 정도라 할 수 없습니다.

화의 현황을 파악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까. 우리 불교계의 정보화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보다 효과적으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노력 없이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불교계의 언론 3사(BBS, btn, 현대불교)와 손잡고 불교정보화 실태조사를 벌이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현주소를 분명히 알고 정보화 분야의 과제들을 짚어냄으로써, 불교계에 보다 향상된 정보화 틀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마침 이 조사 사업에 KT(한국통신)가 협찬을 하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후원을 하여 불교계의 정보화 불사는 충분히 발전 지향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마련된 이 중요한 기회에 사부대중께서 적극 동참하실 때 불교계가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부대중께서 짧은 시간 가져 주시는 관심과 협력이 불교정보화의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설문에 무리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조사 하나

- 주요 설문 내용 ●
 - △ PC: 컴퓨터의 이용 여부와 주된 용도 및 주 사용자, 업무 만족도, 구입 희망 여부 등을 묻는다.
 - △ 인터넷: 인터넷의 사용 여부, 접속 유형, 주된 사용 목적, 정보 검색의 관심 분야, 평균 사용 시간 등 사용실태에 대해 질문한다.
 - △ 홈페이지: 사찰이나 단체가

- 부, 위성 인터넷 서비스와 위성 방송 등 각종 통신 환경에 불교계는 얼마나 적응하고 있는지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게 된다.
- 조사 방법 ●
 - △ 전화 설문: 1만 2천여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20여 문항을 전문 업체가 설문한다.
 - △ 우편 설문: 종단협 등록 종단

인터넷 사용 여부 등 85항 질문 전화·우편·방문 등 4방법 동원

홈페이지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설문한다. △ 불교 정보화 의견: 정보화로 인한 종무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과 불교계의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및 그 적절한 범위 등을 묻는다. △ 핸드폰과 관련, 문자 메시지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여부와 PDA의 사용 여

의 6천여 사찰과 단체를 대상으로 80여 문항을 우편 설문하게 된다. △ 온라인 설문: 우편설문 대상 사찰과 단체에 설문 문항과 함께 온라인 설문을 위한 CD를 동봉해 우송한다. 이 CD는 모바일 버전의 신 개념 종무관리 프로그램이다. △ 방문 면접 설문: 각 종단의 총무원 및 종무기관과 주요 사찰 500여 곳에 대해서는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설문을 한다.

‘종단화합·수행·교육’ 가장 중요

청동대불 건립문제 전문가 의견 존중

입법 행정기관들의 합의와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사면 복권을 정식으로 건의해 오면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무리하게 한쪽 말만 듣고 화합을 저해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 지난해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에 대한 견해차가 발생해 불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해인통일석가모니불 건립계획으로 인하여 절집안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어 중도들과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산승이 부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실상사에 가서 젊은 열기로 일으킨 사태는 잘못된 것이고, 책임은 전부 나에게 있습니다. 불교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없

음의 얽매에서 벗어나 삼계의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명과 탐욕에서 자각의 눈을 떠야 합니다.”

◆ 조계종의 통합종단이 출범까지 올해로 40년입니다. 시대를 이끌고 선도하는 종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종교단체에서는 평화방식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가르치듯 인격자를 기르는 게 종교현명입니다. 정부가 돕는다고 종교가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스님들이 수행을 게을리 해서 불교가 뒤쳐졌어요. 수행자의 모든 위상은 철저한 수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출고 배고파야 공부할 마음을 냅니다. 수행자는 가난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조만간 출

전화 한 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02)737-0090

전국적인 정보화 실태조사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조사대상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록 종단의 모든 단위사찰 포교당
- 현재 활동중인 불교관련 단체

조사기간

- 2002년 4월 1일 ~ 30일

당부 사항

- 전화 설문 조사에 응대에 주십시오.
- 우편 조사 시 설문지 작성을 성실껏 해 주시고 반송봉투에 담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조사 시 조사 요원의 활동에 협조에 주십시오.

조사결과 발표

- 2002년 5월 중 (지상 공개 및 백서 발간)

꾸밈한 경품 그리고 특전

- 전화, 우편 조사에 응해 주시는 사찰(단체) 중 100 곳을 추첨해 모형 에일레 중을 드립니다.
- 방문 조사에 협조에 주시는 사찰(단체)에는 고급 달마수저세트를 드리고 향후 초고속 인터넷을 가설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방문, 우편 조사에 응해주시는 사찰(단체)에 대해서는 신개념의 종무관리프로그램인 ‘상황종무관리 모바일 버전’을 무상 제공하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설문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이 타 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등은 KT(한국통신)의 협찬과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의 후원을 받아 전국의 모든 사찰 포교당 및 관련 단체와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화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불교계의 정보화 촉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의 주지스님들과 단체장님들께서는 공사(公事)하시더라도 조사요원의 방문 또는 전화, 우편, 설문지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